



04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김정석(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요약

- 그 동안 급격하게 증가해 오던 이혼건수와 이혼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된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이혼자수와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지난 10년간 이혼자들의 연령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현재 이혼자들은 유배우자들보다 중·장년층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으며, 학력이 낮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 이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배우여성보다 더 높고 이혼여성이 2세대 가구에 속할 비율은 이혼남성보다 훨씬 높다.

최근 만혼, 비혼 현상과 더불어 이혼 또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1만 1천여 건이었던 이혼건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IMF 위기'라고 통칭되는 1990년대 후반에 한 해당 10만여 건을 넘긴 이후, 2003년에 16만여 건에 이르게 된다.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11만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혼사례의 급격한 증가 및 지속과 더불어, 이혼의 주요 연령층, 이혼사유 및 재판이혼비율의 변동을 포함해 이혼의 양상과 성격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혼은 당사자들에게는 결혼관계의 법적인 해체라는 개인적 사건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이혼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과제를 남기게 된다. 여기에서는 최근 이혼의 개괄적인 추이와 이혼 당시 부부의 생애주기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혼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현재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유배우 남녀의 특성과 비교해 파악하기로 한다. 여기서 고려하는 이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가구구성형태,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등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혼자들의 삶의 조건과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들이다.

이혼의 추이

〈표 I-14〉는 지난 10년간 이혼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혼건수는 2003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매년 10만 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구 1,000



명당 이혼발생건수를 보여주는 조이혼율과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발생건수를 보여주는 일반이혼율 또한 2003년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일반이혼율을 보면, 2012년 현재 남성의 경우는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5.4건, 여성의 경우는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5.3건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건수가 다소 적어지는 현상은 결혼상태에 있는 남녀의 숫자와도 관계된다. 우선 만혼과 비혼의 증가로 인해 미혼이 증가한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는 무관하며, 이들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이혼발생의 사례를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다음으로 이미 이혼을 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누적됨으로써 이혼발생 건수가 점차 낮아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건수가 매년 10만

여 건을 넘고 있는 것은 이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수용적으로 변하고 이혼의 실행도 이전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혼 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혼 시 평균연령은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남편이 40.6세에서 45.9세로, 아내가 37.1세에서 42.0세로 높아졌다. 이혼한 남편과 아내 간의 평균연령차는 결혼당시의 연령차를 반영한다. 평균이혼연령의 증가는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자체가 상승한 탓도 있을 수 있으나,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혼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혼남녀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관련해서 이후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표 I-14〉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의 성격 또한 변하고 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협의이혼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2012년 현재 전체 이혼의 76.0%가 협의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협의이혼의 비율은 다소 감소되어 온 반면, 재판이혼의 비율은 증가해 왔다. 재판이혼은 2005년에 12.8% 정도였으나 2007년에 15.2% 그리고 다음해에 22.1%로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20% 이상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재판이혼의 증가는 최근 이혼 시 재산과 양육을 둘러싼 대립이 증가하고 여성의 재산분할권을 인정하는 사회와 법조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14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2002-2012

연도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	일반이혼율(%)		평균이혼연령(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2	144,910	3.0	7.6	7.5	40.6	37.1
2003	166,617	3.4	8.7	8.5	41.3	37.9
2004	138,932	2.9	7.2	7.1	41.7	38.2
2005	128,035	2.6	6.6	6.5	42.1	38.6
2006	124,524	2.5	6.3	6.2	42.6	39.0
2007	124,072	2.5	6.2	6.1	43.2	39.5
2008	116,535	2.4	5.8	5.7	44.3	40.5
2009	123,999	2.5	6.0	6.0	44.5	40.7
2010	116,858	2.3	5.6	5.6	45.0	41.1
2011	114,284	2.3	5.4	5.4	45.4	41.5
2012	114,316	2.3	5.4	5.3	45.9	42.0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발생건수임.

2) 일반이혼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발생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혼사유로 배우자부정, 가족의 확대, 가족 간 불화 등 가족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이 중에서 가족 간 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2003년 이후 다소 낮아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12-13% 정도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2002년에 이미 44.8%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혼건수,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등이 그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지표들은 주어진 기간의 발생건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혼율에 비해 재혼율이 낮고 매해 10만여 건 이상의 이혼이 유지된다면, 주어진 시점의 이혼자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I-15>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산출된 이혼자수와 이들이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남녀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이혼자의 수와 비율은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표 I-14>의 이혼건수, 조이혼율, 일반이혼율과는 달리 이혼자들이 꾸준히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현재 남성이혼자는 모두 72만여 명으로 15세 이상 남성 중 3.6%를, 여성이혼자는 모두 89만여 명으로 15세 이상 여성 중 4.4%를 차지한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명 정도가 이혼한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의미이다. 남성이혼자에 비해 여성이혼

자가 더 많고 그 비율이 높은 것은 남성의 재혼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표 I-15 성별 이혼자수와 비율, 2000-2010

연도	남자		여자	
	이혼자수 (명)	비율 (%)	이혼자수 (명)	비율 (%)
2000	324,191	1.8	380,525	2.1
2005	522,516	2.8	617,677	3.2
2010	720,479	3.6	889,108	4.4

주: 1) 이혼자 비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이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삶의 단계에 따른 이혼 양상의 변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출산, 양육과 같은 가족 단위의 생애주기를 밟는다. 이혼은 가족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이혼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결혼초기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는 이혼 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 결혼유지기간, 그리고 미성년자녀유무 등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생활주기(혹은 생활단계)에 접근하여 지난 10년간 이혼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I-16>은 이혼 당시 연령을 44세 이하, 45-59세, 60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이혼 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분포와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남녀에 관계없이, 이혼 당시 44세 이하였던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5-59세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24.3%에서 42.6%로, 여성의 경우 15.0%에서 33.0%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노년층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비율은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3.1%에서 8.5%, 여성의 경우 1.2%에서 4.1%로 세 배 정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평균이혼연령의 증가는 결국 중·장년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16 이혼부부의 이혼연령, 2002-2012

(%)

이혼연령	남자			여자		
	2002	2007	2012	2002	2007	2012
15-44세	72.7	60.7	49.0	83.8	73.7	62.9
45-59세	24.3	33.4	42.6	15.0	23.6	33.0
60세 이상	3.1	5.9	8.5	1.2	2.8	4.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혼한 부부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결혼을 유지한 후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가와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가 있었는가는 <표 I-17>에 제시되어 있다. 이혼 당시 부부의 결혼유지기간이 5년 미만(1년 미만 포함)인 비율은 지난 10년간 25%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결혼 후 배우자와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눈에 띄는 현상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이후에 이혼을 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2002년에 이미 15.7%였으며, 2012년에는 26.4%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근에 이혼한 부부 4쌍 중의 한 쌍은 적어도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이며, 이들은 결혼초기에 이혼한 부부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혼부부의 연령분포와 연관시켜보면,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장년 이상 연령층에서의 이혼이 결혼초기의 이혼과 함께 오늘날 이혼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17 이혼부부의 결혼유지기간 및 미성년자녀 유무별 구성비율, 2002-2012

(%)

	2002	2007	2012
결혼유지기간			
1년 미만	5.1	5.9	4.6
1-5년 미만	21.8	21.3	20.1
5-10년 미만	23.3	20.5	18.9
10-15년 미만	19.4	17.5	15.5
15-20년 미만	14.7	14.7	14.6
20년 이상	15.7	20.1	26.4
미성년자녀 유무			
있었음	71.2	59.0	53.0
없었음	28.8	41.0	47.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자녀, 특히 어린 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결정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고민은 부부 간의 문제나 불화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 <표 I-17>을 통해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유무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녀가 없는 비율이 2002년 28.8%에서 2012년 47.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대체로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결혼초기단계의 부부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이미 성장한 부부로 구분된다.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한 중·장년 이상 연령층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미성년자녀 유무의 비율 변화 또한 성인자녀를 둔 부부에게서 발생한 이혼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혼자들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이혼 추이와 이혼 당시 부부의 생애주기적 단계를 살펴본 데 이어, 이혼자들의 주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I-18>을 통해 이혼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이혼자들이 남녀에 관계없이 대체로 45-59세의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 시 평균연령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다. 또한 젊은 나이에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통해 유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5-44세의 이혼자 비율이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혼자들이 집중된 45-59세 연령대, 특히 50대 연령층의 남성들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연령층의 여성들은 대체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적 압박이나 위기감과 더불어 이 연령층에서는 재혼의 가능성이 그 아래 연령층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이혼상태가 노년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I-18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연령구성, 2010 (%)

이혼연령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15-44세	36.8	29.4	45.1	36.3
45-59세	39.1	55.6	37.2	52.0
60세 이상	24.1	14.9	17.8	11.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이혼자들의 교육수준 또한 유배우자들의 교육수준과 차이를 보인다. 남녀에 관계없이, 이혼자들은 유배우자에 비해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다. 이혼자들의 대부분은 남녀 관계없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표 I-19). 이 현상은 이혼자들의 연령이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그 동안 한국 사회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에도 현재의 중·장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 이혼자들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즉 현재 한국의 이혼자들은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들의 교육수준 또한 유배우자들에 비해 낮다.

표 I-19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교육수준, 2010 (%)

교육수준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중학교 이하	21.1	29.8	27.6	30.6
고등학교	35.6	46.7	39.8	50.2
대학 이상	43.3	23.5	32.7	19.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이혼자들의 가구구성형태는 유배우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I-20>에 의하면, 이혼자들은 대체로 1인가구나 2세대 가구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남성과 이혼여성 간에는 차이가 발견된다. 이혼남성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2세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 대체로 남성들은 이혼 후에 혼자 사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여성은 이혼 후 미혼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I-20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가구구성형태, 2010 (%)

가구구성형태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1세대 가구	24.0	3.1	23.7	2.9
2세대 가구	62.7	39.4	64.0	54.7
3세대 이상 가구	9.9	15.0	10.5	9.5
1인가구	2.9	40.1	1.7	31.2
비친족 가구	0.5	2.4	0.1	1.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이혼자들의 거주지역은 <표 I-21>을 통해 알 수 있다. 유배우자들의 80% 정도가 도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배우자들에 비해 이혼자들이 동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다소 높다. 특히 여성이혼자들의 경우, 동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89.0%에 이른다. 여성이혼자들이 도시지역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들의 취업기회와 자녀양육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21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거주지역, 2010 (%)

거주지역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동부	80.1	83.0	81.1	89.0
읍부	9.2	7.8	8.9	6.3
면부	10.7	9.2	10.1	4.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 I-2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혼자들의 경제활동상태는 남녀 간에 차이가 발견된다. 남성의 경우, 유배우자들에 비해 이혼자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는데 남성이혼자의 30.6%가 경

표 I-22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성별 경제활동상태, 2010 (%)

경제활동상태	남자		여자	
	유배우자	이혼자	유배우자	이혼자
미취업	20.2	30.6	50.6	38.3
취업	79.8	69.4	49.4	61.7
전일제	77.2	65.1	41.3	55.7
시간제	1.0	1.4	5.9	3.1
일시휴직	1.5	2.9	2.2	2.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체로 남성이 주 생계자가 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낮은 남편들에서 이혼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는 유배우자에 비해 이혼자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오히려 높다.

이는 유배우여성들의 상당수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혼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61.7%에 이르는 점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이 이혼을 한 사례와 이혼 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례가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학력의 중·장년층 여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혼 후 생계를 위한 취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혼여성의 전일제취업 비율이 유배우 여성들의 전일제취업 비율보다 높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즉 유배우 여성들은 남편의 별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만, 이혼여성은 대다수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